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과정과 평가

이정우·정재홍(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논문 요약

50년 전인 1964년 9월 11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파병이 실행되었다. 이 '역사적 행위'는 한국군의 군사(軍史)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역사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탈냉전의 국제정치에서도 한국이 처한 위치와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구조적 제약과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한국의 위치가 외교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만은 없다.

비록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여파, 국내정치적 동력 등이 한국의 선택을 폭넓게 하지 못하지만, 베트남 파병 시기보다 훨씬 성장한 한국의 국력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 왔다. 역사에서 우리가 언어야 할 것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변화의 가능성은 또다시 한국의 '결정적'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베트남 파병, 한국군, 한미관계, 한미동맹, 안보환경

I. 서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4년 9월 11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외 파병이 실행되었다. 바로 베트남 파병이다. 지금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이 '역사적 행위'는 한국군의 군사(軍史)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역사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한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한미동맹의 혈맹(血盟) 역사를 굳건히 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긍정적 기억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일협정으로 위기에 몰린 박정희 정부의 위기돌파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대한의 젊은이들이 '남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한국의 정체(政體)가 동원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¹⁾ 베트남 파병에 대한 양 극단의 평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실제로 극단의 목적이 동시에 진행된 복합적 산물이 바로 베트남 파병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정책은 단순히 어느 한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외적 변수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조절된다. 베트남 파병 역시 당시 박정희 정부의 정권차원 판단과 국가이익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것이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차원의 이해(interests) 공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베트남 파병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²⁾ 첫째, 초강대국인 미국의 압력 또는 요청을 거절할 능력이 없었던 한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 한국전쟁

1)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평가는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2007년 가을호, pp. 288~291 참조.

2) 이와 같은 분류는 이정우·권수현, "한·미간 베트남 파병 협상과정: 투키디데스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1권 4호, 2010, pp. 302~303 참조.

으로 전쟁특수를 얻었다는 사실을 박정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베트남 파병에는 경제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셋째, 박정희 개인의 권력욕에 초점을 두는 설명으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따라서 권력의 정당성을 갖지 못해 국내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내부 위기를 돌파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파병을 적극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참전 50주년인 2014년의 시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잡한 동북아의 국가 간 이해구조와 안보상황의 변동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탈냉전의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냉전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선택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II. 베트남 파병의 배경에 관한 해석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베트남 파병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존재한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베트남 파병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제안에 앞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먼저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는 사실이 당시 외교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밝혀지고 있다.³⁾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감축⁴⁾과 한일국교정상화를 한반도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삼자 한국 정부는 안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 즉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베트남 파병을 단행했다는 주장 역시 그것이 애초의 파병 원인이 아니라 파병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역시 절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적 권력차원에서 파병하였다는 세 번째 주장 역시 그것이 파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파병에 따른 후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또한 당시 한국이 처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파병의 배경을 단순하게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파병 원인에 관한 이상의 주장들은 한국군 베트남 파병의 시대적 배경에 가까우며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피원조국’인 한국이 오히려 ‘원조국’인 미국을 지원하는 파병이라는 ‘특별정책’을 통해 안보위기의 해소, 경제발전의 토대 구축, 정권의 정당성 확보 등을 획득하려고 한 근본적 원인은 당시 한미관계의 구조적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결이라는 양극체제였고, 남한과 북한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분단된 형태로 탄생했다.⁵⁾ 양극체제 하에서 남한은 반공을 국시로 채택하게 했고, 이를 유지·강화하는 목표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 구속시켰다.⁶⁾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존재는 한국의 생존은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고, 그들의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위배되지 않는 절대적 제약 하에 이뤄져야 했다. 따라서 한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을 주장하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대응하지 못한 한미관계의 구조적 속성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의 외교정책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관계, 위협세력의 존재 여부, 패권국의 대외

3) 사실 한국이 인도차이나반도의 분쟁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이승만 시기인 1954년으로 올라간다. 한국전쟁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전력 증강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파병을 제의했던 것이다. 유병선,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 전, 걸프전, PKO 파병 사례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55~56.

4) 이 시기 병력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2000 참조.

5) 강성학,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변천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 서울: 나남출판, 1995, p. 386.

6) 위의 책, p. 387.

정책, 약소국의 국내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⁷⁾ 한국의 경우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이 가장 크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한국 정부가 왜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는가의 문제이다. 자국 안보의 대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지할 정도로 자국 방위에도 미흡한 국가가 자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베트남전쟁은 애초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간의 내전이었으나, 미국이 물리적으로 개입하면서 국제전 성격이 띠게 되었다. 미국의 개입은 베트남전쟁의 성격·규모·차원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한국 정부 역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는 이유나 개입의 정당성 여부, 개입방식 등에 대한 평가 보다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부에게 중요했다. 동맹의 일방인 강대국이 제3자의 전쟁에 연루되었을 경우 동맹의 다른 일방인 약소국은 그 전쟁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자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임을 얻어 국가안보를 계속 든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파병은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신뢰와 의지 또는 헌신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옵션이었다고 할 수 있다.⁸⁾ 특히 이런 인식 하에서 베트남 파병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이후 미국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할 때 한국이 '잠재적 협력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⁹⁾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군의 파병 제안은 미국의 전쟁명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략적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으며,¹⁰⁾ 따라서 베트남 파병 카드는 한국의 뛰어난 선점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조건적 지원이나 정의(자유 진영의 수호)에 기반을 둔 호의를 바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 선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주는 것에 상응하는 '역할'을 것을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이익에 기초한 정책수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기 미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베트남 파병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지도자 개인의 특성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즉, 군사정권이라는 특성이 여러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파병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믿었고, 미국의 힘을 통해 일본의 모습을 닮기 위한 비전을 실천하려고 했다.¹¹⁾

그런데 베트남 파병의 총체적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대만, 스페인 등 6개국 파병 병력 총합의 거의 3배에 달하는 5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¹²⁾ 초기의 베트남 파병 제안은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후 지속적인 증원은 애초의 손익 계산을 악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민간인 학살이라는 명에, 미국 '용병'이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대만이 얻은 소득보다 조금 더 얻었을 뿐이다.¹³⁾ 또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은 종전(終戰)

7) 장노준,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1호, 1997, p. 384.

8) 이에 대해서는 "베트남 파병 제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당시 외무부 장관의 증언이 존재한다.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서울: 고려원, 1993, pp. 105~110.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볼 때, 베트남전쟁은 한국군의 인명피해(전사자 4,960여 명, 부상자 10,922명),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고엽제 후유증 등 신체적·물리적 외상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대미 종속 심화 및 병영국가의 피해를 만들어 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년 봄호, p. 139.

9) 홍규덕, "박정희의 베트남전 참전결정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p. 303.

10) 최용호, "한국군 베트남파병과 박정희," 위의 책, p. 379.

11) 홍규덕, "박정희의 베트남전 참전결정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p. 326.

12)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년 봄호, p. 137.

13) 위의 글, p. 135.

이후 군사원조가 상당히 줄어들어 등 대규모 파병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다. 특히 한국이 요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극적 개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초기의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미완의 정책이 된다. 이렇듯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과 평가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과와 달리 비판적인 주장도 공존한다. 이는 파병 50주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명확하고 합의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III. 한국의 파병 제안과 미국의 베트남정책 전환

군사쿠데타를 이용하여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당시 미국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군사정부를 하루 바빠 민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했다.¹⁴⁾ 이에 대해 박정희 의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집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으로부터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장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¹⁵⁾ 이를 위해 박정희 의장은 민정이양을 약속했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외피를 받아들임으로써,¹⁶⁾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고 국내적 정치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나아가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과

14) 당시 미국 정부의 한국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제 기회주의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세력파도 대화를 거부하는 극우민족주의 성격의 새로운 정권을 파트너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국가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이 건설적인 목표(constructive ends)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Presidential Task Force on Kore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5 June 1961, Box 51, JFK: AmEmb SEL to SECSTATE, 12 August 1961, 28 October 1961, 17 November 1961, Box 128, JFK.
15) 홍규덕, “파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대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1993, p. 27.
16) 임혁백,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 『한국정치연구』 제13집 제2호, 2004, pp. 236~237.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최대한으로 얻어냄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정권의 최대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1961년 6월 30일, 정일권 주미대사가 케네디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면서 “한국은 미국과 한국이 같은 운명체(riding the same horse)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양국의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 한국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¹⁷⁾이라고 말한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1961년 7월 26일에 박정희 의장은 “우리는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 세계에 걸친 방위에 대한 귀하의 언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전쟁이 강요된다면, 대한민국은 싸움에 참여할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들 중 하나가 될 것”¹⁸⁾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냄으로써 미국의 군사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1961년 11월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특별원조 요청¹⁹⁾과 함께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제안하였다.²⁰⁾ 그러나 당시 케네디 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공개적인 군사력 투입에 반대하였으므로 박정희 의장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이 남베트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군사고문단 등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²¹⁾ 미국은 버거(Samuel Berger)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양국

17)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 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집』 제1권에서 재인용.

18) Telegram from Park Regarding President's Statement On Berlin, July 26, 19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집』 제1권에서 재인용.

19) *FRUS, 1961-1963*, Vol. X, 1996, p. 530.

20) 그 구체적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베트남에 한국군을 보낼 수 있으며 만약 정규군의 파병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병을 모집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를 한국의 고위 장성들과 협의했는데 그들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제안을 군사관계자들에게 검토하게 하신 뒤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3:30~4:50 p.m. “U.S.-Korean Relations.” *Northeast Asia, FRUS, 1961-1963*, vol. X, 1996, p. 536.

21) 홍규덕, “박정희의 베트남전 참전결정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p. 310.

간 모든 군사적 교류는 미국정부와 베트남 주재 미국 군사고문단의 허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²²⁾을 전달했다.

미국이 한국군 파병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의장은 한국군 파병을 계속적으로 제안했다. 1962년 송요찬 국무총리가 미국 헤리만 국무차관보와 대담 중에 한국군 파병문제를 제기했으며 주미대사와 외무부장관 등도 미국 인사들에게 파병을 계속 제안했다.²³⁾ 1964년 3월 초에는 김철 전 총리가 북베트남에 대한 전쟁수행 과정에서 미국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는 3~4천 명의 한국군을 파견할 의사가 있음을 버거 대사에게 전달했다.²⁴⁾ 이에 대해 버거 대사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한일협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²⁵⁾ UN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반대를 불러올 수 있고 UN총회에서 ‘한국문제’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²⁶⁾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이었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정부와도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 1962년 2월에 동남아 4개국을 방문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남베트남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 m)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 파병을 제안했다.²⁷⁾ 지엠 대통령이 김종필과의 면담에서 군사사절단 파병을 요청하자 한국 정부는 1962년 5월 11일, 심흥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군사사절단을 베트남에 파견했고 이들은 3개월(1962. 5. 14~7. 22) 동안 남베트남 전역을 둘러보고 당시 상황을 지엠 대통령과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합참 정보국장 강기천 해병대 소장과 기획조정관

장우주 육군소장이 이스라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남베트남에 들려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1964년 3월에는 여당 지도부가 사이공을 방문했고 1964년 4월에 베트남 군사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²⁸⁾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남베트남에 대해 외교적으로 파병을 제안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파병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63년 9월 27일, 국방부는 미국이 베트남 파병을 요청해 올 경우 한국의 대처방법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하였다. 또한 1963년 8월에는 김성은 국방부 장관 및 군 고위 장성들이 대통령 별장에 모여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였다. 1964년 7월에 이르러 박정희 대통령은 제1해병사단장 강기천 소장에게 제1해병사단을 철저히 훈련시켜 베트남으로 갈 준비를 하되 국회승인을 받을 때까지 극비리에 붙이라는 밀명을 내렸다.²⁹⁾

케네디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은 베트남전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시점에 놓였다.³⁰⁾ 그동안 케네디 정부의 제한전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접근은 미군철수가 아닌 베트남전쟁의 미국전쟁화(Americanization)였다. 존슨 정부는 1964년 3월 17일, 국가안보조치 메모(NSAM-28)를 승인하고 베트남 사태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는 UN군을 구성해 참전했던 한국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유세계 국가들이 동참하는 다국적군 구성에 착수했다.³¹⁾ 존슨의 동맹확보전략(More Flags Campaign)은 1964년 4월 22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졌다.³²⁾ 그러나 이

22) Embetel (1154) Seoul, Berger to Rusk (5 May 1962), *NSF, Korea General Box 128*, JFK Library.

23) Incoming Telegram No 1041,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17, 196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2권에서 재인용.

24) Editorial Note, No. 5. *FRUS 1964-1968*.

25) Telegram 1128 from Seoul. March 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59. Central Files 1964-66, POL 7 KOR S, in Editorial Note, No. 5. *FRUS 1964-1968*.

26) Telegra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March 7, 1974, Asia and the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 filmed from LBJ Library No.5-0501. pp.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3권에서 재인용.

27) 김진석, 『베트남에 오른 햇볕』, 서울: 신아각, 1970, pp. 8~9.

28)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 p. 154.

29)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여로』, 서울: 계몽사, 1995, pp. 243~247.

30) 장준갑, “존슨행정부 초기의 한미관계(1964~1966): 베트남 파병협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52집, 2009 참조.

31) Gravel, Mike (Ed.), *The Pentagon Papers: History of Vietnam War*, Vol. III. Boston: Boston Beacon Press, 1972, pp. 50~51.

32) Summary Record of NSC Meeting No. 528, 22 April, 1964, *National Security File*, Box 1, LBJ Library.

에 대한 우방국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영국은 소극적이었고 프랑스와 파키스탄 등은 남베트남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의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의 군사개입을 반대했다.³³⁾ 이후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1964년 5월 1일에 25개 우방국가들에게 베트남 참전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³⁴⁾

그런데 미국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보인 것은 대만과 한국, 호주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러스크 국무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1964년 7월, 버거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베트남 전쟁을 게릴라전이기에 때문에 남베트남 정부군조차 베트남을 구별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게릴라전에 지상군 전투 병력을 참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베트남으로부터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국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³⁵⁾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한국군의 파병을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존슨 대통령은 1964년까지는 제한전쟁(limited war)을 유지하였으나, 1965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후 전면전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1965년 7월에 월남주둔 사령관 웨스트 몰렌드에게 군사작전을 백지위임하였다. 이미 미국 의회는 1964년 8월의 톤킹만 사건(Gulf of Tonkin Incident)³⁶⁾ 이후 대통령에게 베트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는 전쟁선언권을 백지위임한 상황이었

33)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365.

34) 25개 국가들은 호주, 서독, 일본,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태리,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한국, 대만, 파키스탄, 그리스, 터키,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스웨덴 등이다. Cable Circular (2043), Rusk to Lydman, 1 May, 1964, *National Security File*, Box 4, p. 8.

35)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 filmed from LBJ Library No.5-064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자료집』 제3권에서 재인용.

36) 1964년 베트남 동쪽 톤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군 구축함의 해상 전투 사건을 말한다. 이 전투를 빌미로 미국은 본격적인 베트남전 개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정당화를 위해 개입된 것이 알려졌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도 회고록을 통해 톤킹만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다. 이로써 베트남전쟁의 미국전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베트남 파병요청을 받은 박정희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964년 9월 22일, 130명 규모의 이동식 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 교관단 등 140명 규모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건국 이래 국군의 최초 파병이 실행되는 순간이었다.

IV. 전투병 파병에서 철수까지의 한미협상 과정

1차 파병이 이뤄진 후 한국정부는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미국에 타진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 전투병력 파병은 필수적인 것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³⁷⁾는 생각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게릴라전에서 외국군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국정부의 전투병 파병 제안을 일축했다.³⁸⁾ 그러나 한국은 재차 전투부대 파병을 제안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에는 퇴역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2개 정도의 전투사단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³⁹⁾ 이에 대해 러스크 국무장관은 “같은 아시아인으로 베트남인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⁴⁰⁾ 그런데 미국이 원했던 동맹국들의 호응이 부진하자, 1965년 3월에 이르러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군 전투사단이 베트남에 배치됨으로써 예상되는 공산주의자들의 대응 (Probable Communist Reactions to Deployment of a ROK Combat

37)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제6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9, p. 50.

38) Telegram 12 to Seoul, July 3. in Editorial Note, 문서번호 5, *FRUS 1964-1968*.

39) “ROK Assistance to Viet Nam.” Memorandum of Conversation, December 19, 1964, *FRUS 1964-1968*.

40) Memorandum, Michael V. Forrestal to LBJ (8 December 1964), *National Security File*, Vietnam, LBJ Library.

Division for Base Security Duty in South Vietnam)”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한국군의 베트남 배치에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미 국무부는 한국군 전투사단을 베트남에 배치해도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은 없을 것이며, 미군 투입비용에 비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한국군을 이용하더라도 동북아시아에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⁴¹⁾ 1965년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와 볼(George W. Ball) 국무부 차관의 면담이 있었고, 3월 15일 이동원 외무장관과 존슨 대통령 및 러스크 국무장관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다음날인 3월 16일, 2천여명 규모의 건설지원단(비둘기 부대)으로 구성된 제2차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떠나게 된다.

1965년 3월 20일에 이르러 미 합참은 존슨 대통령에게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사단의 파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⁴²⁾ 1965년 3월 24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한국 전투사단이 플레이쿠, 콘툼, 달락 지역이나 비엔호아와 나트랑 근처에서 미군군의 투입을 대체할 대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보고를 받는다.⁴³⁾ 이후 4월 1~2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 국가안보위원회(NSC) 연석회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에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고,⁴⁴⁾ 4월 20일에는 로지(Henry Lodge) 미 대통령 특사의 박정희 대통령 예방이 이뤄지면서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에 관한 제안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965년 5월 17일~18일,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⁴⁵⁾ 이 만남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투병 파병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

41)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 p. 157.

42) Westmoreland, William C., *A Soldier Report*.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6, pp. 125~127.

43) Sheehan, Neil, *The Pentagon Papers*. New York: Bantam Books, 1971, p. 399.

44) Kahin, George, *Intervention: How America Became in Vietnam*. New York: Anchor Books, 1986, p. 313. 이 회의에서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활용하기로 하는 최종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4월 6일, 미군 15만 명과 한국군 21,000명을 1965년 10월까지 파견할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NSAM 328이 각의(내각회의)를 통과했다.

45)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방문 직전에 브라운 대사를 만나 2,000명에 달하는 베트남 주둔 한국 비전투 병력의 경비를 위해 전투부대 파견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브라운 대사는 비전투 병력이 위험하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국무부에 보고했다. Telegram Form the

다.⁴⁶⁾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1965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군 1개 사단과 이에 필요한 지원부대의 파병을 의결했고, 7월 12일에 파병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⁴⁷⁾ 이때의 결정을 미국에 알린 주한 미국대사는 1965년 7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미 국무부에 보냈다.

한국이 전투사단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군은 잘 싸우며 미국 외에 공산베트남에 대한 유일한 대항마이다. 이것은 거룩한 결정이다. 한국에는 좀 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며 역사의 전환점이 왔다. ...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의 피와 재화를 아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⁴⁸⁾

국회에 3차 파병 동의안이 제출된 당시에 한일기본조약 비준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다. 1965년 7월 14일 밤, 적잖은 소동을 겪은 끝에 국회에서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파병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1965년 9월, 제3차 제2해병여단(청룡부대)을 파병하고 10월 12월에는 수도사단(맹호부대)을 베트남에 추가로 파병했다. 베트남 전쟁의 미국화가 진행되었지만, 베트남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군 1개 사단의 추가파병을 요구해왔다. 1965년 12월, 러스크 장관은 UN총회 참석을 위해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27, 1965, *FRUS 1964~1968*.

46) “U.S.-Korean Relations.” Memorandum of Conversation, May 17, 1965, *FRUS 1964~1968*.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어냈다. 첫째,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철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한국과 사전 협의한다. 둘째, 한국 방위에 충분한 수준의 한국군을 유지한다. 셋째,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군사원조 이관계획을 재검토한다. 넷째,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를 확대한다. 다섯째, 개발차관으로 1억5천만 달러를 우선 반영한다. 여섯째, 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Memorandum of Convention*, Washington, May 17, 1965, 5:00 p.m., May 18, 1965, 5:00 p.m.), “U.S.-Korean Relations.”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집』 제3권에서 재인용.

47) 당시 이승만 정권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손원일은 수송부대나 공병대를 보내는 데는 찬동하지만 전투부대 파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언론이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대군인들 중 지원을 받아 의용군을 파견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안은 국제사회에서 ‘용병’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민간인 신분인 제대군인으로 부대를 편성할 경우 이들의 급여를 민간인 군수 수준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년 봄호, p. 126.

48)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ly 10, 1965, *FRUS 1964~1968*.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증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서로 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때 정일권 총리는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또한 한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미국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했다. 하나는 한국군 월급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내용을 비공개 원칙을 깨고 언론에 공개했다. 또 다른 하나는 파병으로 인해 한국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군대는 한국이 보내나 경제적 이익은 일본이 챙기고 있다는 소문을 냈다. 일본과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돌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65년 12월 28일 미국 백악관에서는 실무보좌관 회의가 열려 한국에 대한 세 가지 차관(발전소 건설을 위한 2,250만 달러, 서울 수도시설을 위한 376만 달러, 민영 시멘트 공장 확장을 위한 300만 달러 등 총 2,900만 달러)을 제공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 다음 날 회의결과가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후 미국은 1966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험프리 부통령을 한국에 특사로 보내 전투부대 증파를 요청했다.⁴⁹⁾ 험프리 미국 부통령이 두 번째 서울을 다녀간 5일 후인 2월 초순에 국무회의는 4차 파병안을 의결했다. 2월 23일, 이동원 장관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미대사가 「한미합의의사록」을 작성했고 이를 기초로 주한미국대사는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⁵⁰⁾

49) 4차 파병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고 덩덤했다. 체념의 태도가 적극적 파병반대론을 제기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4차 파병 반대론은 여성계 쪽에서 제기되었다. 한국 부인회는 험프리 미 부통령이 방한 중이던 1966년 2월 22일, 미군 수준의 “처우개선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 한 월남 전선에 국군증파는 절대로 반대한다”고 1,500만 한국여성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년 봄호, p. 130.

50) 1966년 3월 4일 브라운 주한미대사가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공한형식으로 보내온 ‘브라운각서’는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외교문서다. 당시 한미 양국은 ‘브라운각서’를 비공개하기로 약속했으나 미국이 1970년 ‘사이명턴청문회’에서 먼저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이 알려졌다. 사이명턴청문회는 1970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 상원에서 열렸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열렸던 청문회로 미국 상원 ‘안보행정 및 대외공약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사이명턴 의원의 이름을 따서 ‘사이명턴청문회’로 불린다.

를 만들어 한국정부에 보냈다. 1966년 3월 20일 국회는 증파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6월 30일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선 후방 공수임무를 수행할 은미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했다. 이어 10월 10일까지 제9사단 파병을 완료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 방문이 이뤄졌다. 파병된 한국군의 수는 5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66년 6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규 전투부대가 아니라 전역한 군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 추가로 병력을 더 파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베트남 전투병 파병문제로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곤경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박정희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거 이전 추가파병을 언급하지 않았다.⁵¹⁾ 이런 와중에 1966년부터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의 파병에 대해 “남한의 월남 파병을 용인치 않으며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1966년부터 대남 도발을 격화하였다. 특히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10월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간 교전이 확대되어, 북한군의 공격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군사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닐라에서 개최된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 이후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시기인 11월 2일에는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한 대규모 공격으로 한국군 1명과 미군 6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음 날에는 한국군이 북한 진지에 공격을 가해 북한군 15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⁵²⁾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⁵³⁾ 비무장지대 부근에서의 남북충돌에 대해서 박정희는 북한 도발이 있으면 모두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⁵⁴⁾

51)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 pp. 168-169.

52) Pol 27-14 KOR/UN 11-38-66, Political Affairs and Relation: Truce, Cease-fire, Armistice, 1966, Confidential U. S. State Department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Korea, 1964-1966, RG 59, NA.(국회도서관 소장 문서).

53) 조진구, “존슨 정권 후반기의 한미관계: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3호, 2003 참조.

54) “Internal Security: Views of President Park.”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9, 1967, FRUS 1964-1968.

한편, 1967년 3월, 한국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3차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하나는 반(反)침투장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역군인들 중 희망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부대와 전문가, 노동자들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것이었다.⁵⁵⁾ 1967년 9월 4일, 브라운 대사 이임 후에 취임한 포터(Porter) 대사와 면담을 한 박정희 대통령은 포터 대사에게 반침투장비가 어느 정도 제공되는지에 따라 추가파병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했다.⁵⁶⁾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존슨 대통령은 1968년 3월까지 파병을 요청하면서 1968년 1월 1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북한의 침투작전을 막을 수 있는 장비들을 포함한 거대 군사원조를 약속했다.⁵⁷⁾

그런데 1968년 들어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은 더욱 강화되었다.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69년 4월, EC-121 격추사건 등 정전체제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자행한 도발행위 건수를 보면 1966년에 50여 건에 불과했으나 1967년에 566건, 1968년에 761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1969년 한 해 동안에는 147회에 걸쳐 341명의 무장공비가 출현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한국 정부의 위협의식을 한층 배가시켰다. 더욱이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발생 때 미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자세에 크게 실망했고 미국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⁵⁸⁾

1969년 1월 20일, 닉슨(Richard M. Nixon)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베트남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단계적 철군’을 발표하고 1969년 7월 25일, 캄에서 ‘닉슨독트린’을 선포했다. 이는 한국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방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자립을 촉구하고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회피하겠다는 이 선언은 한국정부 내에 한미동맹체제의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 7월, 미국은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⁵⁹⁾ 이에 한국은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철수와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닉슨 행정부와는 마치 반대방향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미국 지상군 대부분이 철수한 후에도 한국군 2개 사단을 베트남에 잔류시켰다. 더욱이 이 시기 미국 정부에 대한 반한(反韓) 감정을 되돌리기 위해 실시한 비밀외교는 ‘코리아게이트’(Korea Gate)로 비화되면서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에서 수행한 한국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미군철수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한국 정부가 베트남 잔류를 고집하는 이유를 어떤 정의감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⁶⁰⁾ 미국이 받을 때는 전쟁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V. 결론

미국의 부정적 또는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타진했던 한국은 미국의 베트남 정책변화에 의해 1964년 9월 22일 최초로 140명을 베트남에 파병하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 파병을 제한한 한국의 명분과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미국의 명분을 모두 살려주었다. 비대칭적 한미관계

55) *Memorandum of Conversation*, March 14, 1967, *FRUS 1964~1968*.

56) *Editorial Note*, 문서번호 126. *FRUS 1964~1968*.

57) Notes on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rk, Canberra, December 21, 1967, *FRUS 1964~1968*, Vol. XXIX, No. 140 document.

58) 이에 따라 1968년 4월, 반공의 전열을 강화하기 위해 250만 향토예비군을 창설을 단행했다. 강성학,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변천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 서울: 나남출판, 1995, pp. 368~369.

59)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국가안보결정(NSDM) 48호에 의해 1970년 3월 20일에 결정되었다.

60) 홍규덕, “파병외교와 안보신드림: 60년대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1993, p. 43.

속에서 양국은 모두 필요한 것을 얻는 결과를 얻었다. 어쩌면 약소국이라는 한국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1차 파병으로 더 많은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신뢰뿐만 아니라 물질적군사적 이득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었다. 동시에 1차 파병이 비전투병 파병이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깊어져야 하는 부담이 당시 한국 국가의 능력에 비추어봤을 때 그리 크지 않았고 비동맹국가들로부터의 비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파병이 이뤄진 지 얼마 안 돼 한국은 “전투병력 파병은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에 전투병 파병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 파병은 1차 파병 때보다 규모는 15배 이상 커졌으나 전투병이 아닌 건설지원단이 파병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미관계의 상황은 역전되었다. 당시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미국의 대규모 파병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베트남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한미관계는 미국이 주도하던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협상관계로 바뀐 것처럼 보였다.⁶¹⁾ 더욱이 존슨 행정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부터 한국은 대미협상과 대미관계에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⁶²⁾ 그러나 베트남전의 향로에 대해 미국 내부의 논의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국정부는 5차 파병 때부터 이전과 다른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다. 1967년 선거에서 대승⁶³⁾을 거둔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본격화하기 시작한 북한의 도발을 추가파병 문제와 연결시켜 미국과 협상했다. 즉,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국내 안보문제로 베트남 추가파병이 쉽지 않다는 신호를 미국 관계자들에게 보내면서 미국에 더 많은 원조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안보위기 상황을 이용해 내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원조를 얻어 내려고 했다.⁶⁴⁾ 더욱이 박정희 정권은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선제공격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에 압력을 가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 관계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지만, 결국 미국은 1968년 1월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약속하며 박정희 정부에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공은 실제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설정해둔 선을 넘어서는 위험한 게임을 한 것이었다.⁶⁵⁾ 결국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안보 위기를 베트남 파병협상과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차 파병협상 때 미국 관계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만약 베트남전쟁이 계속 되었다면 한국 정부

61)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에서의 작전수행이 “한미상호방위동맹체계의 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조성했으며 한미 간에 최대의 밀월상태를 유지하게 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최용호, “한국군 베트남파병과 박정희.”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pp. 162~196.

62) 박정희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는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더 크게는 호주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구상했다. 위의 글, p. 195 및 박정희, 『민족의 지력』, 서울: 광명출판사, 1971, pp. 184~186 참조.

63)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16만 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1967년 선거에서는 야당후보인 윤보선을 10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다.

64)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2형성론.”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p. 139.

65)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 p. 178. 미국에 대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에 브라운 대사 후임으로 온 포터 대사는 한국군에 파병을 요구하지 말라고 미국 행정부에 권고했다. 1967년 12월 21일 캐나다에서 박정희와 존슨이 만났을 때, 존슨의 빠른 파병요청에 대해 박정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결정할 때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Australia to the Department of State, Canberra, December 21, 1967, FRUS 1964~1968), 3월까지 추가파병을 요청하자 박정희는 국방장관이 4월이 되어야 한다더라고 대답했다(Notes on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rk, December 21, 1967, FRUS 1948~1968).

와의 협상에서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5차 파병협상 시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이후 한미관계를 불편한 관계로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정부는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자, 이를 안보위기로 규정하고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미·중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한편으로는 미·중 화해와 같은 당시 국제정세를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탈냉전의 국제정치에서도 한국이 처한 위치와 상황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구조적 제약과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한국의 위치가 외교적으로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만은 없다. 비록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여파 및 국내정치적 동력 등이 한국의 선택을 폭넓게 하지 못하지만, 베트남 파병 시기보다 훨씬 성장한 한국의 국력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 왔다.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베트남 파병정책의 과정과 그 결과는 소중한 사례가 된다. 이상에서의 논의된 것과는 달리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해석과 평가의 논쟁을 넘어, 경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과 변화의 가능성은 또다시 한국의 ‘결정적’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선택이 절대적 약소국의 적극적 선택이었다면, 미래의 선택은 상대적 약소국의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강기천, 『회고록: 나의 인생여로』, 서울: 계몽사, 1995.
- 강성학, 『카멜레온과 시지프스: 변천하는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 서울: 나남출판, 1995.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2권.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3권.
- 김진석, 『베트남에 오른 햇불』, 서울: 신아각, 1970.
- 박정희, 『민족의 저력』, 서울: 광명출판사, 1971.
-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 서울: 광명출판사, 1978.
-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위기와 제2형성론”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06년 봄호.
-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2007년 가을호.
-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제·지역연구』 제9권 3호 (2000) 참조.
-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서울: 고려원, 1993.
- 이정우·권수현, “한·미간 베트남 파병 협상과정: 투키디데스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평화학 연구』 제11권 4호, 2010.
- 임혁백,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 『한국정치연구』 제13집 제2호, 2004.
- 장노순, “약소국의 갈등적 편승외교정책: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1호, 1997.
- 장준갑, “존슨행정부 초기의 한미관계(1964~1966): 베트남 파병협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52집, 2009.
-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제6권, 서울: 조선일보사, 1999.
- 조진구, “존슨 정권 후반기의 한미관계: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3호 (2003)

- 최용호, “한국군 베트남파병과 박정희.”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2003년 봄호.
- 홍규덕, “박정희의 베트남전 참전결정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정성화 (편),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 홍규덕, “과병외교와 안보신드롬: 60년대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제32집 2호, 1993.
- Gravel, Mike (ed.), *The Pentagon Papers: History of Vietnam War*, Vol. III. Boston: Boston Beacon Press, 1972.
- Kahin, George, *Intervention: How America Became in Vietnam*. New York: Anchor Books, 1986.
- Sheehan, Neil, *The Pentagon Papers*. New York: Bantam Books, 1971.
- Westmoreland, William C., *A Soldier Report*.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6.
- “Internal Security: Views of President Park.”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9, 1967, *FRUS 1964~1968*.
- “ROK Assistance to Viet Nam.” Memorandum of Conversation, December 19, 1964, *FRUS 1964~1968*.
- “U.S.-Korean Relations.” Memorandum of Conversation, May 17, 1965, *FRUS 1964~1968*.
- Cable Circular (2043), Rusk to Lydman (1 May, 1964), *National Security File*, Box 4.
- Editorial Note, No. 126, *FRUS 1964~1968*.
- Editorial Note, No. 5, *FRUS 1964~1968*.
- Embetel (1154) Seoul, Berger to Rusk (5 May, 1962), *NSF, Korea General Box 128*, JFK Library.
- FRUS, 1961~1963*, Vol. X, 1996.
- Incoming Telegram No 1041,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March 17, 196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2권.

- Memorandum of Convention, Washington, May 17 1965, 5:00 p.m., May 18, 1965, 5:00 p.m.
-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 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
-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3:30~4:50 p.m.), “U.S.-Korean Relations.” *Northeast Asia, FRUS, 1961~1963, vol. X*, 1996.
- Memorandum of Conversation, March 14, 1967, *FRUS 1964~1968*.
- Memorandum, Michael V. Forrestal to LBJ (8 December, 1964), *National Security File, Vietnam*, LBJ Library.
- Notes on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rk, Canberra, December 21, 1967, *FRUS 1964~1968*, Vol. X X I X, No. 140 document.
- Notes on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esident Park, December 21, 1967, *FRUS 1948~1968*.
- Pol 27-14 KOR/UN 11-38-66, Political Affairs and Relation: Truce, Cease-fire, Armistice, 1966, Confidential U. S. State Department Central Foreign Policy Files: Korea, 1964~1966, RG 59, NA.(국회도서관 소장 문서).
- Presidential Task Force on Kore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5 June, 1961, Box 51, JFK ; AmEmb SEL to SECSTATE, 12 August 1961, 28 October 1961, 17 November 1961, Box 128, JFK.
- Summary Record of NSC Meeting No. 528 (22 April, 1964), *National Security File*, Box 1, LBJ Library.
- Telegram 1128 from Seoul. March 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59. Central Files 1964-66, POL 7 KOR S, in Editorial Note, No. 5, *FRUS 1964~1968*.
- Telegram 12 to Seoul, July 3. in Editorial Note, No. 5, *FRUS 1964~1968*.
- Telegram For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April 27, 1965, *FRUS 1964~1968*.
- Telegram from Department of State to Seoul Embassy (July 3, 1964), *Asia and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 filmed from LBJ Library No. 5-0649.

Telegram from Park Regarding President's Statement On Berlin, (July 26, 19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관련 자료철』, 제1권.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Australia to the Department of State, Canberra,

December 21, 1967, *FRUS 1964~1968*.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ly 10, 1965,

FRUS 1964~1968.

Telegram, Amembassy Seoul to Sec. state(March 7, 1974), Asia and the Pacific: National

Security Files, 1963~1969. First Supplement, Micro filmed from LBJ Library No. 5-0501.

ABSTRACT

The Process and Evaluation of ROK Army Dispatch to Vietnam

Lee, Jeong-woo · Chung, Jae-Hung(IFES of Kyungnam University)

The first ROK army dispatch abroad executed 50 years ago in Vietnam. This was the turning point, not only the history of Korean army's overseas footprint, but also in South Korea's dynamic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cy of a certain country is not formatted or developed only according to a regime's intention. Decision-making is built up through various elements that are caus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In this context, the ROK army dispatch to Vietnam is thought of as the result of a complete mixture of the Park Jung Hee administration's judgements on its interests domestically and national interests internationally in the lens of the US-ROK relationship and alliance.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that different from 50 years ago for South Korea.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still exists, the US and China's relationship is unstable, and South Korea is still quite dependent on US for security. In this circumstance, South Korea could soon face a 'crucial' choice as it did in the Vietnam War era. Therefore, the ROK army dispatch to Vietnam 50 years ago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hoice should be a good lesson on making a wise choice whe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Keywords : ROK Army Dispatch to Vietnam, South Korean army,
South Korea-US relationship, US-ROK Alliance, security environment

투고일 : 2014년 10월 31일, 심사일 : 2014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5일